

淸州 塔洞洋館의 立地選定 및 坐向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Site Selection and Orientation of Western House in Cheongju

서 향 순* 이 민 경** 김 태 영***
Seo, Hyang-Soon Lee, Min-Kyoung Kim, Tai-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site selection and orientation which have affected the western missionaries in construction of the first western house in Cheongju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e site selection, they chose Tap-Dong hill, by finding the higher position and taking a fine view of all natural elements, because the alters like the tomb of Confucius, the existing settlement Godang village, Dang Mt. are already located around this area. And also it was that they could easily go into Tap-Dong hill through the existing alleys, These alleys, generated near the original road of Tap-Dong hill, are developed to modern road system. These alleys affect western house's entrance and orientation.

In deciding the orientation of house, Korean people prefer to south and east by considering Feng-shui theory; otherwise western house, specially the first house has a southwestern aspect, because the western missionaries have a preference for the topography, entry, and view than a house facing south.

키워드 : 청주, 근대건축, 양관, 입지선정, 좌향

Keywords : Cheongju, Modern Architecture, Western House, Site Selection, Orientation

1.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양의 건축술은 1876년 개항을 계기로 개항장(開港場)과 개시장(開市場)을 중심으로 전래되기 시작하였으며, 내륙지방으로의 전래는 서양의 선교사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내륙지방으로 파견되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경인선 및 경부선 철도개통을 계기로 물품 및 자재의 반입이 용이해지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한국 근대기에 세워진 건축물 중 하나인 청주 탑동양관은 1907년 이래로 청주지방에 최초로 건립된 양식주거 건물로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에 의해 선교를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청주 탑동양관은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전통건축에서 근대건축으로 변모해 가는 과도기적 건축양식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건축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¹⁾

더군다나 청주 탑동양관의 입지는 건립될 당시 서양인 선교사의 사고로 선택된 것으로, 무심천변 청주읍성을 중심으로 한 비교적 평탄한 한국인의 거주지와 달리 동산을 선정하여 지었다는 점, 건물 좌향이 남향과 동향을 취

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풍수지리에 입각한 우리나라의 주거입지방식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주 탑동양관의 건립에 있어서 서양의 선교사들이 중요시 한 입지선정요인, 건물배치에 있어서 대지조건 및 좌향의 결정요인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주거용건물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양인 선교사들이 그들의 거주지 혹은 선교처를 선정하고, 또한 주택의 좌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였는가에 관심을 둔 것이다. 선교사들의 대표적인 정책인 네비우스 선교정책을 유념하면서 조망, 기존의 길과의 관계, 주변의 자연적 조건 등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알아보고, 건물의 배치에 있어서는 읍성주변의 가용지, 주요 지형·지물, 주진입과 대지에서 바라보는 조망 등을 분석하여 현재의 좌향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청주의 1895년 도면²⁾과 1922년 청주시가도³⁾, 1960년대 청주시지적고시종합도, 1970년대 항공사진, 그리고 2000년대 항공도를 바탕으로 양관의 건립이전 지형과 도로망 등을 유추하고, 양관의 위치 및 좌향을 확인한다. 또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주변 현황과의

*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 원세용, 청주양관1호 조사연구, 청주대 석론, 1993, 1쪽
대한건축학회, 미지정 문화재 건축물 실측조사 보고서 I, 1987

2) 청주도시계획변천사도집, 청주시, 1994, 7쪽

3) 위의책, 청주시, 1994, 9쪽 출처: 대청주(大清州)

관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1988년 작성된 도면⁴⁾을 바탕으로 실의 구획과 건물의 좌향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다.

3.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청주 탑동양관은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에 의해 청주지방에 최초로 건립된 한·양 절충식 건물로, 1904년부터 탑동의 땅을 매입하기 시작하여 1905년 여름부터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후 1932년까지 선교사 사택, 선교본부, 병원, 성경학교 등이 건립되어 지역선교와 의료봉사의 본거지로 이용되었다. 이것이 청주 탑동양관으로 1983년 3월 19일 충청북도 문화재 관리위원회에서 충북 일원의 기독교 선교와 교육·의료의 핵심이 되었던 양관 6동을 모두 지방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⁵⁾

선교를 목적으로 건립한 양관은 주택과 사무실, 성경학교용도로 사용되었는데, 2007년 현재 학교 내에 위치한 양관 중 1호는 사용되지 않고 있고, 2호와 3호는 교사로, 4호는 학사로 사용되고 있다. 그 외 학교밖에 위치한 양관 5호와 6호는 기존용도를 여전히 유지하며 사용되고 있다.

표 1. 청주 탑동양관의 현황(2007년 현재)

건물명 (지정번호)	소재지	건립년 도*1	건축규모		기존용도	현용도	비고	좌향
			층수	연면적*2				
1호 (133-4)	탑동 185-1	1907	지하1, 지상2	511㎡	선교사 주택	-	선교사 기념비	남서
2호 (133-5)	탑동 185-1	1910 -1911	지하1, 지상2	494㎡	선교사 주택	교무실, 체육교육 실 등	-	남서
3호 (133-6)	탑동 185-1	1912	지하1, 지상2	543㎡	소민병원	양호실, 상담실, 휴게실	청주최초 서양병원	남동
4호 (133-3)	탑동 185-1	1925	지하1, 지상2	511㎡	선교사 주택	여고학사	민노아 가족	남동
5호 (133-1)	탑동 94-17	1930	지하1, 지상2	547.1㎡	선교사 주택	주택	소열도 선교사	동
6호 (133-2)	탑동 92-94	1932	지하1, 지상3	543.8㎡	성경학교	성서신학 원	부례선목 사 기념	남서

*1 청주 탑동양관 각 건물 앞에 있는 충청북도에서 설치한 안내문에는 청주 탑동양관이 1907년에서 1932년 사이에 건립이 되었다고 적혀 있지만, 문화재지정당시 양관6호(충북유형문화재 133-2호)의 건립연대(1932년)를 제외한 5동의 건축연도는 알 수 없었다고 한다.

*2 청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보고서, 2004



그림 1. 청주 탑동양관 전경(상단에서 우측으로 1-6호)

4) 대한건축학회, 미지정 문화재 건축물 실측조사 보고서Ⅱ, 1988
5) 청주지역 근대기에 세워졌던 양관은 7동이 지어졌는데, 1동(구 청주세브란스병원)이 철거되어 6동의 건물이 충북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존하고 있다, 원세용, 청주양관 1호 조사연구, 청주대, 석사논문, 1993



그림 2. 청주 탑동양관의 배치도(2000년대)

II. 네비우스 선교정책

초기 선교사들은 경험이 없는 젊은 선교사들이었으며, 확고한 선교계획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선교방안을 찾아야만 했다. 이미 중국에서 풍부한 선교경험을 갖고 있는 네비우스(John Nevius)는 미국 북장로교의 선교사 언더우드(H.G.Underwood)의 초청으로 한국에 잠시 머무르며 경험이 없는 젊은 선교사들을 위하여 선교정책에 관한 강연을 하였으며, 그 후 네비우스 선교정책은 한국 개신교회의 선교방향과 선교방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초기 선교사들의 대표적인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내용을 언더우드는 다음의 네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 ①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 그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 그가 개인전도 하는 일군이 될 때까지 자기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한다.
- ② 교회의 운영과 기구조직은 그 교회 자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획 실천하여 발전을 하도록 해야 한다.
- ③ 교회에서 전도 사업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 나오거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유자격자가 생기면 그들을 선임하여 교회의 지도 일꾼으로 세워 육성한다.
- ④ 교회당 건축을 가급적으로 그 교인들 자신의 힘으로 하게 하되 건축의 구조나 모양은 한국 고유의 양식으로 혹은 지방의 교회답게 건축하도록 유의한다.⁶⁾

이렇게 언더우드는 토착교회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본토인의 능력에 걸맞는 교회를 세워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에도 직업이나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여 장로교회의 지역적 고착성을 갖게 되고자 함을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주요항목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네비우스 선교정책은 선교사들이 주거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선교활동이

6) 박은열, 네비우스 선교정책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 및 해외 선교에의 적용, 한일장신대 석론, 2005, 24쪽

- ① 선교사는 개인적으로 널리 순회하며 전도한다.
- ② 사역의 모든 분야에서 성경이 중심이 된다.
- ③ 자전 : 모든 신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며 동시에 자기보다 나은, 다른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자가 된다. 모든 개인과 집단은 휘문이법에 의해 사역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한다.
- ④ 자치 : 모든 그룹은 선임된 무보수 영수의 관할을 받는다. 순회 교구들은 나중에 목사가 될 유급 조사들의 관할을 받는다. 순회집회시에는 교인들을 훈련시켜 훗날 구역, 지방, 전국 의 지도자가 되게 한다.
- ⑤ **자립 : 신자들이 스스로 마련한 예배당을 소유한다.** 각 그룹은 창립되자마자 순회 조사의 봉급을 지불하기 시작한다. 학교조차도 부분적인 보조금을 받도록 한다. 이것도 설립될 당시에만 필요하다. 개교회 목사에게 외국의 자금으로 사례를 지불하지 않는다.
- ⑥ 모든 신자는 그룹 영수와 순회 조사 아래서 조직적인 성경공부를 한다. 그리고 모든 영수와 조사는 성경연구 모임을 통해 조직적으로 성경을 공부한다.
- ⑦ 성경적 평벌을 통해 엄격한 경계를 실시한다.
- ⑧ **다른 선교단체와 협력하고 연합한다. 아니면 최소한 영역이라도 분리한다.**
- ⑨ 법정 소송사건이나 그와 유사한 문제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
- ⑩ 민중의 경제 문제에서 가능한 경우 일반적인 도움을 준다.

제한되던 초기에는 외국인 집단 거주지나 각 지역 개항장의 외국인 거주지, 또는 조계지내에 주택을 정하여 자리잡고 정주하면서 점차 교회나 학교 그리고 병원을 소규모로 설립하여 한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대로변의 진출을 모색했다.

이러한 지방의 거점 도시에 선교기지를 탐색할 경우 선교사들은,

첫째, 각 지역의 교회가 설립된 곳의 관리가 용이한 지역의 지리적인 중심지,

둘째, 철도가 생길 이후에는 철도를 이용하기 유리한 지방도시와 지리적인 중심지를 종합적으로 검토,

셋째, 지방도시의 성안으로 진입보다는 성문근처 한국인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나 5일장이 서는 장터근처에 선교기지를 매입하여 주요한 기독교 전파의 장소로 이용 등에 대해서 고려한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첫째, 선교의 주 대상인 기존의 한국인 밀집 거주지인 성시를 잘 조망할 수 있는 높은 언덕이나 구릉지,

둘째, 거점도시의 성시로부터 멀지 않은 인접한 거리의 대지,

셋째, 아주 저렴한 비용을 갖고 구입할 수 있으며, 충분한 넓이를 갖는 대지,

넷째, 한국의 전통적인 기존 건축의 인지도가 높은 권위적 위상이나 종교적 상징등과 연계할 수 있는 대지⁷⁾ 등의 위치를 선정한다.

7) 도선봉, 한국근대건축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장로회 선교건축의 특성, 충부개 박문, 2002, 152-154쪽

III. 입지선정 요인

1. 주변의 자연적 조건

청주시 전체 지형을 두고 보았을 때(1895년 청주시가지), 청주읍성의 서쪽으로는 무심천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와우산(현 우암산)이 둘러싸고 있는 형상이다. 청주읍성의 위치는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설에서 택지를 정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배산임수를 띠고 있다. 여기서 양관의 대지로 선택된 장소는 청주읍성의 동쪽을 둘러싸고 있는 와우산의 산자락으로 현재의 탑동동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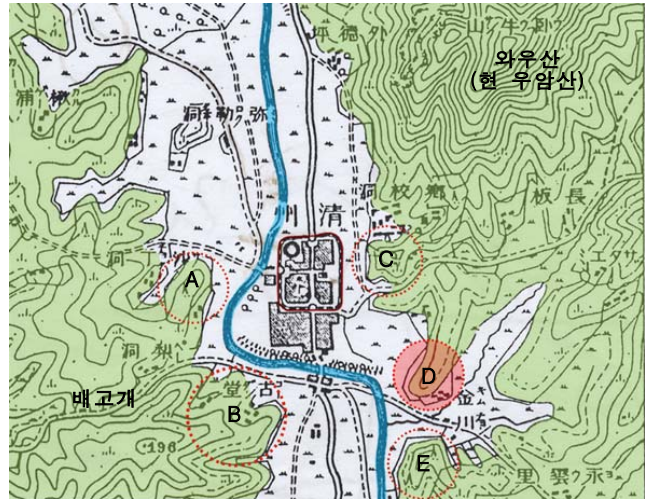


그림 3. 구한말 청주읍성주변 현황(1895년)

청주읍성 주변으로는 탑동동산 이외에도 높은 산과 언덕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를 선택하게 된 연유로는 1904년 청주읍교회(청주제일교회)가 청주읍성 남문밖에 설립되었으며, 무심천을 중심으로 청주읍성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읍성과 가까우면서 교회 관리가 용이한 남동쪽에 위치한 언덕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그림 3에서 보이는 언덕들은 읍성과 인접하고, 남문에서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섯 부분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A'는 사직산의 산자락으로 사직단(社稷壇)⁸⁾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B'는 고당(古堂)마을로 청주의 토박이가 살던 곳이다. 고당 위쪽으로는 배고개(梨洞)가 지나가고 있으며, 배고개 아래쪽으로는 여러 마을이 자리잡고 있었다. 읍성의 서쪽에 위치한 'C'는 당산이며 그 위쪽 산골짜기에 향교가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A, B, C' 언덕 위나 주변에는 이미 제단, 민가, 향교 등이 선점하고 있어 양관이 입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나머지 'D, E'는 현재의 탑동동산과 영운공원으로, 두 언덕에는 앞서의 'A, B, C'의 동산과 달리 제약조건이 없었다. 영운공원은 두 언덕의 사이로 흐르는 쇠내개울(금

8) 사직단(社稷壇)은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던 곳으로 고려 공민왕이 흉년직을 피하여 안동까지 피난을 갔다가 난을 평정한 후 돌아가는 길에 청주에 이르러 세운 제단으로 일제강점기 때 허물어지고, 현재는 그 자리에 충혼탑(忠魂塔)이 세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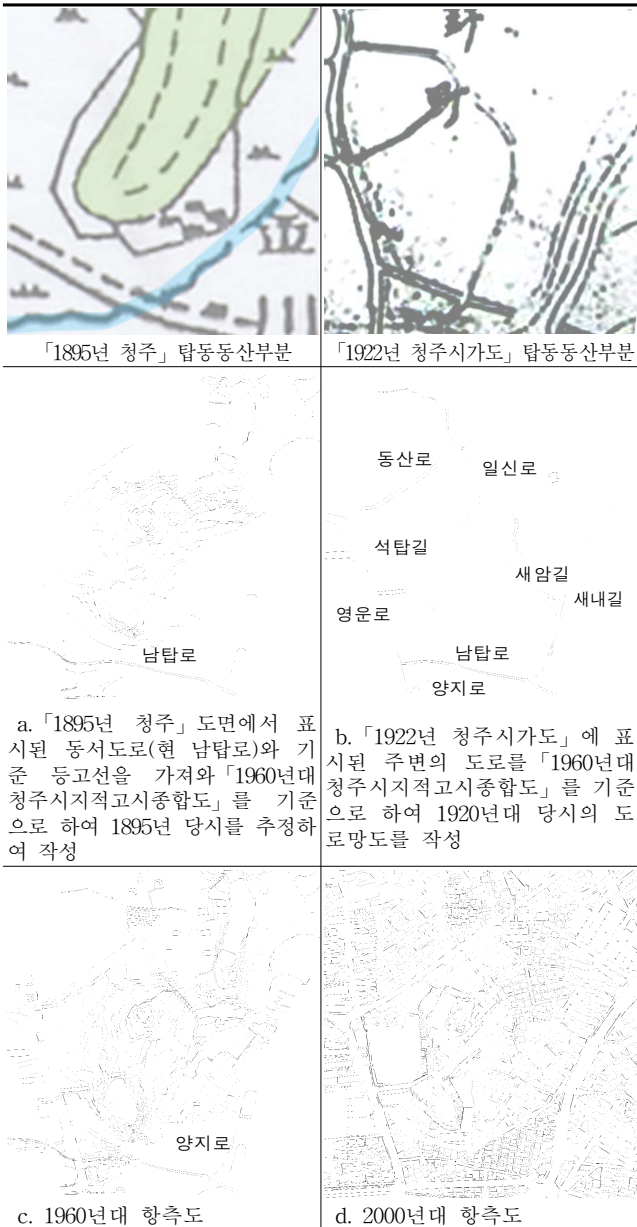


그림 4. 청주 탑동양관 주변의 도로형성과정

천) 너머에 위치하고 있어 거리면에서 탑동동산이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 기존 길과의 관계

1895년 지도를 보면, 청주 탑동양관이 입지하고 있는 동산이 유일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길은 우암산 산세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산 남쪽편 바로 앞으로 동서로 난 도로⁹⁾가 동쪽으로 금천을 지나 영운리(永雲里)로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남석교¹⁰⁾를 지나 모충동의 배고개로 갈 수 있게 되어있다. 청주 탑동양관1호의 건립시기가 1907년으로 등재되어 있어, 이 당시에는 아마도 이 길이

9) 현재 최내개울을 건너 금천1옛길과 연결되는 남탑로이다.

10) 현재 청주 성안길과 육거리시장의 석교1로와 만나는 곳에 매장되어 있다.

동산으로 오르는 유일한 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911-1915년 사이에 청주읍성곽이 파괴되면서, 기존 도로망이 정비되었으며¹¹⁾, 이와 동시에 청주면 주변의 사주면(四州面)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의 도로도 정비되었을 것이다. 이후 1920년대 청주시가지도를 보면, 양관 1, 2, 3, 4호가 입지하는 동산 주변으로 소로망이 연결되어 있다. 구한말부터 있었던 동서도로인 남탑로 이외에 동산 서쪽편으로 남북방향의 석탑길이 있는데, 이곳에 동산으로 오르는 입구가 표시되어 있다. 아마도 이 입구는 양관 1호가 만들어질 당시부터 있었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 입구를 통하여 완만한 경사로를 이용하여 양관 1호로의 접근근로가 만들어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외에 호두나무골로 이어지는 동산로, 교도소가 위치하였던 현 석탑아파트에서 갈라져 동산을 거쳐 금천으로 이어지는 일신로, 그리고 금천을 따라 형성된 새내길이 주변에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로의 형성과정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 청주시지적고시종합도와 항공사진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 수목이 울창한 청주 탑동양관으로 접근 가능한 이들 도로망 주변, 특히 금천에 면한 남동쪽으로 수많은 주택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양지로와 주거지내 소로망이 개설되어, 사망의 어느 곳에서나 양관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림 5. 1970년대 청주 탑동양관 주변현황

3. 탑동동산을 바라보는 조망

선교사들이 주거용 건물의 입지를 선택하기에 앞서 주변의 자연적 조건과 기존의 길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 보다 건물이 들어설 장소의 경치, 경관 등 대지를 멀리서 바라보았을 때의 조망이 입지선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1) 1913년 청주면 지적원도

무심천과 쇠내개울 사이로 보이는 탑동동산은 청주읍 성주변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마치 읍성을 감싸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으며, 무심천을 중심으로 탑동동산의 건너편에 위치한 고당이나, 남쪽길 끝에서 동산을 바라보면 무심천 변의 넓은 모래사장 위로 산세의 흐름에 맞춰 계단식으로 입지하고 있으며, 각각의 건물이 서로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금씩 틀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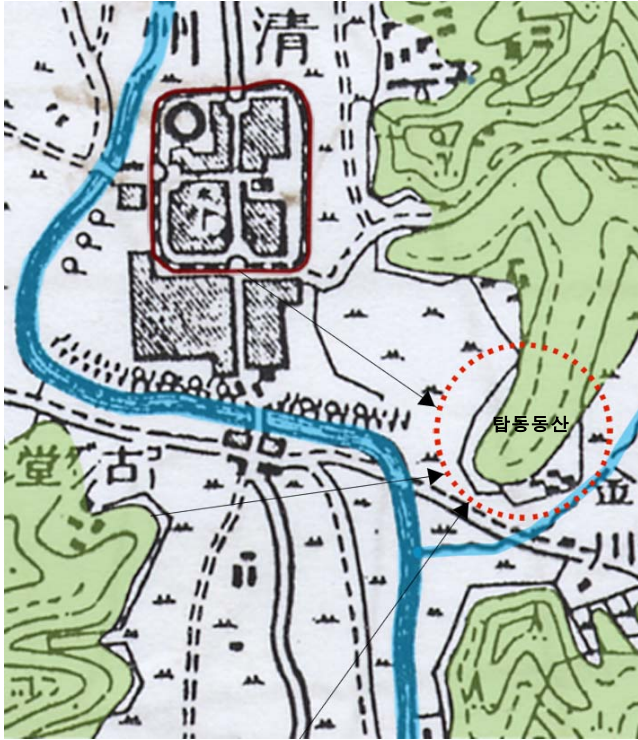


그림 6. 탑동동산을 바라보는 조망

IV. 좌향 결정시 고려사항

1. 양관의 대지와 좌향

청주 탑동양관은 총 6동인데, 1932년 건립된 6호의 성서신학원을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4개동과 병원건물 1개동 총 5개동 모두 동산의 고대(高臺)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좌향을 취하고 있다. 터를 정하고 집을 짓기에 앞서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것이 좌향으로, 어느 쪽으로 집의 방향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집의 방향은 남쪽, 또는 동쪽으로 잡아야 좋다고 되어 있으나, 양관은 남서향, 동서향의 배치형태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히 고려되는 것으로, 양관 1호의 좌향이 남서향을 띠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관습에서 유래된 것과 달리 대지에 대한 해석은 물론이고, 좌향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서양인 선교사의 사고에 연유한 것인지, 우리의 풍수지리설, 우암산 등에 의한 것인지 등으로 살펴볼 수 있겠으나, 앞서의 양관입지선정을 고려해 볼 때, 양관은 향(向)보다는 지세라든가 진입, 그리고 외부로의 조망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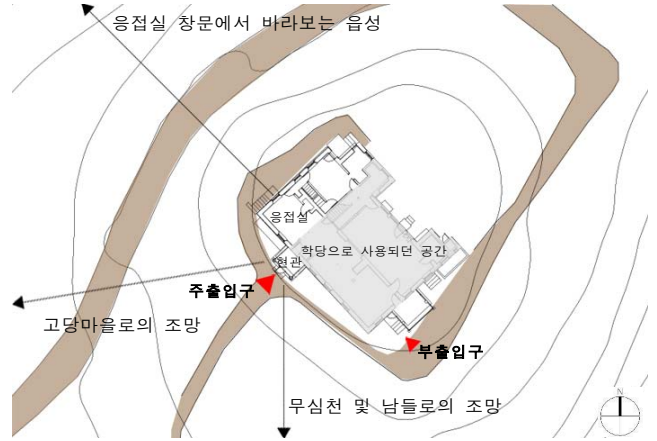


그림 7. 청주 탑동양관 1호 배치도

2. 대지로의 진입

앞서의 옛 지도를 보면, 동서방향의 남담로와 직각으로 석탑길에서 양관1호가 입지하는 동산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다. 양관 1호가 입지하는 위치의 해발고도가 64m이고, 진입구의 해발고도가 48m이므로, 해발고도차가 16m나 되고 있다. 비교적 커다란 대지고저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지로의 진입을 기존의 등고레벨에 맞춰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관 역시 이 방향, 즉 건물의 좌향면 남서방향에 맞춰 위치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동산으로 오르는 길은 양관 1호의 측면인 북쪽편에서 동산너머의 호두나무골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 여기에서 쉽게 진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양관으로의 진입에서나 양관에서 바라보는 집에서 정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와 같은 진입방향을 중시하면서 건물을 배치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그림5) 1970년대 항공사진으로 보면, 현재의 양관 1호 후면, 즉 북쪽으로 울창한 나무숲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용지의 여건상 현재의 배치형태를 결정짓게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림 8. 청주 탑동양관 각 건물의 해발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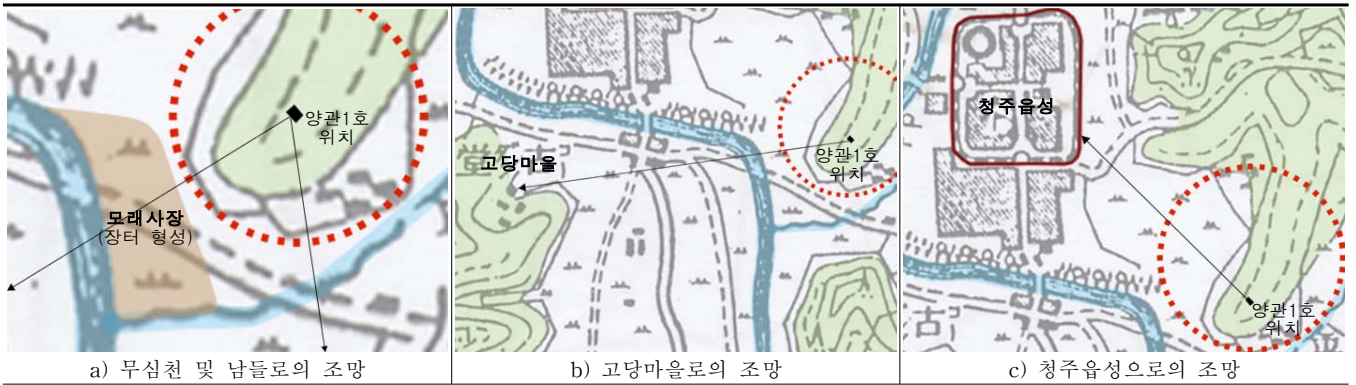


그림 9. 청주 탑동양관 1호에서 바라보는 조망(「1895년 청주」 도면을 중심으로)

3. 대지에서 바라보는 조망

대지 및 양관으로의 진입과 달리 대지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양관의 좌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외부로의 조망 대상으로는, 동산 전면으로 확 트인 무심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옛 마을인 고당(古堂)마을, 그리고 기존의 청주읍성 등이 가능하다.

동산에서 무심천쪽으로는 조망은 남들(현 청주시 수곡동)별관으로 이어져 시야범위에서 매우 넓고, 길게 연장된다. 더군다나 무심천의 수위가 낮아지면, 넓은 모래사장에 장터가 형성되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변경되어, 매우 장황한 경관을 연출한다.

현 모충동 배고개길 입구에 위치한 고당마을로의 조망을 고려하여 남서향의 좌향을 선택한 이유로는, 서양인 선교사가 선교대상으로 생각하는 마을 주민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혹은 네비우스 선교정책에 입각하여 신자들이 스스로 마련한 예배당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청주읍성을 조망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양관 1호의 주방향에서는 청주읍성이 보이지 않으나, 고대(高臺)의 외부공간에서는 기존의 밀집거주지인 청주읍성 및 남문 밖 거주지가 잘 조망된다. 청주읍성이 양관1호의 좌향과 밀접한 관계는 없으나, 인접한 거리에 위치한 대지라는 점에서 상징적 조망대상인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주지역 최초의 양식주거건축물인 청주 탑동양관의 건립에 있어서 서양인 선교사들이 입지선정을 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한 요인이 무엇인지, 또 좌향을 결정지었던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입지선정에 있어서, 서양인 선교사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우선 고대(高臺)를 정하고서 주변의 자연적·인문적 조건을 살펴본 뒤, 탑동동산을 선정하였다. 이는 주변의 사적단, 고당마을, 당산 등에 이미 제단, 민가 및 공자묘가 들어서 있기 때문이었다. 양관이 탑동동산에 입지하게 되면서, 기존의 길(남탑로)에 면한 탑동동산 주변으로 소로망이 생성되어 현재의 도로망으로 발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 길로 인하여 동산 내부에도 좁은 길이

형성되었으며, 이 길은 양관의 좌향에도 영향을 주었다.

좌향을 결정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풍수지리에 입각하면서 남향과 동향을 추구하는 반면, 청주 탑동양관은 어떤 건물도 정남, 정동향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양관 1호의 경우 남서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향보다는 지세, 진입, 그리고 외부로의 조망이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한 데 연유한 것이다. 또한, 양관 1호 이외에 각각의 건물들이 동산자락의 고대부분에 서로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금씩 틀어져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양관의 좌향을 결정할 때 조망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 문헌

1. 대한건축학회, 미지정 문화재 건축물 실측조사 보고서 I-II, 1987-1988
2.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보고서, 청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 2004
3. 청주도시계획변천사도집, 청주시, 1994
4. 청주시지적고시종합도, 청주시, 1960년대
5. 청주시 항공사진, 1970년대
6. 청주시 항공도, 2000년대
7. 원세용, 청주양관1호 조사연구, 청주대 석론, 1993
8. 이민경·김태영, 선교사 주택의 박물관 용도 변경에 따른 전시계획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제 23권 제5호, 2007
9. 서향순·이민경·김태영, 청주탑동양관 1호의 보수보강실태 및 향후 활용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27권 제1호, 2007
10. 研究報告X XI 淸州 塔洞洋館 使用實態 및 實測報告書, 淸州 大學校 建築工學部 留齋·近現代建築史研究室, 2007. 8
11.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역사편찬위원회, 충북노회사료집, 충북노회, 1998
12. 전순동·최동준, 일제기 청주지역 기독교와 교육활동,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9
13. 도선봉, 한국근대건축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장로회 선교건축의 특성, 충북대 박론, 2002